광고경기부진, 실물경기따라 회복세보일 듯

세계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국제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, 수출 격감, 생산 · 출하 · 설비투자 · 국내 소비 등 실물지표 악화로 인해 다수의 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으로써 광고경기도 부진을 겪고 있다.

최근 실적 부진으로 광고 · 마케팅활동이 위축된 기업들의 마케팅전략이 긴축경영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수정 · 집행되고 있는 추세여서 광고경기 회복은 앞으로의 실물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.

2001년도 3/4분기 광고비는 1조 4,697억여원으로 지난 2/4분기에 비해 0.4% 감소했고,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.1%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.

매체별로는 TV광고비가 전분기 대비 2.3% 감소한 4,973억여원을 기록했고, 라디오 광고비는 2.2% 증가한 507억여원, 잡지광고비는 6.0% 감소한 717억여원으로 집계되었다. 반면 신문광고비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건설업종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광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 분기에 비해 1.1% 증가한 8,498억여원을 기록했다. <표 1 참조>

광고주별로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 인수 · 합병 허가조건 충족 이후 기업실적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광고를 집행한 결과 전분기 대비 28.2% 증가한 313억여원을 기록, 부동의 최대 광고주인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.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가 9.6% 증가한 276억여원으로 2위를, KTF가 무려 175.6% 증가한 219억여원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다.

특히 SK텔레콤과 KTF는 이동통신시장 우위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광고물량을 늘린 결과 10대 광고주 순위에 큰 변화를 일으켜 눈길을 끌었다. <표 2 참조>

<표 1> 4대매체 광고비 현황 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01 3/4분기	2001 2/4분기	증감률		2000 3/4분기
			전분기대비	전년동기대비	
신 문	849,887,723	840,866,893	1.1	5.0	809,702,170
T V	497,308,972	508,978,519	-2.3	-12.2	566,310,895
잡 지	71,756,030	76,297,503	-6.0	5.7	67,868,551
라 디 오	50,790,922	49,709,254	2.2	-11.3	57,286,108

자료 : KADD

<표 2> 10대 광고주 광고비 현황 (단위 : 천원, %)

순위	회사명	2001 3/4분기	2001 2/4분기	증감률		2000 3/4분기
				전분기대비	전년동기대비	
1	SK텔레콤	31,323,811	24,426,018	28.2	103.5	15,393,252
2	삼성전자	27,607,995	25,193,979	9.6	3.6	26,642,609
3	KTF	21,990,472	7,979,946	175.6	50.7	14,591,291
4	LG전자	18,839,402	21,194,751	-11.1	0.8	18,690,175
5	태평양	15,546,123	18,512,033	-16.0	2.5	15,167,353
6	남양유업	15,467,411	5,422,880	0.3	13.2	13,660,325
7	한국통신	15,377,602	17,062,169	-9.9	0.9	15,238,927
8	현대자동차	14,944,251	15,491,925	-3.5	-19.1	18,479,365
9	기아자동차	13,212,895	13,630,017	-3.1	-22.3	17,011,146
10	SK	10,600,417	9,111,677	16.3	-5.2	11,176,672

자료 : KADD